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한국 포함되나 삼성, 보급형으로 맞불 04



Life

석촌호수에 '랍스터 킹' 뜬다 긍정기운 전달 1



전공개방모집 확대... 수능최저학력 적용 시 과목지정 해제



CAU융합형인재 면접 폐지, 서류 100% 지역균형전형, 고교별 최대 20명까지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2025학년도 총 모집인원 4868명 중 수시모집을 통해 총 2793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500명(18%), 학생부종합전형 1413명(51%), 논술전형 478명(17%), 실기전형 402명(14%)을 모집한다.

전년도까지 학생부종합전형 CAU 융합형인재에서 실시했던 2단계 면접이 폐지돼 서류 100% 전형으로 변경됐다. 기존 서류 100%로 진행했던 CAU 탐구형인재는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전공개방모집이 확대돼 기존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일부 모집단위에 서만 실시하던 전공개방모집이 정시모집 다군 창의ICT공과대학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및 정시 수능성적 반영시 계열별 수능 응시영

역 및 과목 지정 또한 해제됐다. 그 외의 대부분의 전형 내용은 입학전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2024학년도 전형방법을 대부분 유지한다.

학생부위주전형(교과/종합)으로 수시 선발인원 68%인 191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 지역균형전형은 고교별로 최대 20명까지 추천 가능하며, 서울캠퍼스 모집단위는 계열별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학생부종합 CAU 융합형인재, CAU 어울림, 기회균형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며, CAU 탐구형인재전형은 1단계 서류 100%로 3.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 서류 70%, 면접 30%를 적용해 최종 합격생을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70%, 학생부 30%(교과20% + 비교과(출결) 1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언어논술 3문항이 출제되며, 경영경제계열은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이 출제된다.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4문항이 출제된다. 중앙대는 수험생이 고교교육과

자기주도학습만으로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논술 모든 지문을 교과서를 활용해 출제하고 있다.

실기전형은 실기형에서 358명, 특기형에서 44명을 모집한다. 실기형은 학교 생활기록부와 실기고사를 반영하며 모집단위별 반영 비율이 상이하다.

2025학년도 수시 전형 중 학생부위주전형(교과 및 종합)과 실기·실적전형의 체육특기자전형에 대해서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량적으로 감점을 부여한다. 원서접수는 9월 10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상명 입학처장

학종 'SW인재' 면접 없이 선발... 논술전형은 논술 100%



무전공선발, 유형 나뉘 835명 모집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한국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2086명을 선발한다. 전형 별로 학교장추천전형 375명,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488명, 학생부종합전형(SW인재) 34명,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525명, 기회균형전형 191명, 논술전형 473명을 선발한다. 모든 전형은 중복지원 가능하나, 기회균형전형은 별도의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외대는 2025학년도 무전공 선발에서 유형1, 유형2로 총 835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무전공 선발했던



116명에서 719명이 증가한 규모이다. 유형별로 유형1에서 324명을 선발

할 계획이다. 유형1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서울캠퍼스 자유전공학부(서울)가 신설돼 100명을 선발하며, 글로벌캠퍼스 자유전공학부(글로벌)는 지난해 116명에서 108명 증가한 224명을 2025학년도에 선발할 계획이다. 유형2에서는 511명을 대학·계열별 모집한다.

학생부종합전형 SW인재는 2025학년도로 경우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로써 한국외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2단계 면접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은 면접형이 유일하다.

면접형/SW인재와 서류형/기회균형전형의 차이는 서류평가의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이다. 면접형/SW인재는 학업역량 30%, 진로역량 50%, 공동체역량

20%를 반영하며, 서류형/기회균형전형은 학업역량 50%, 진로역량 30%, 공동체역량 20%의 비중으로 서류를 평가한다. 면접형에서만 실시하는 2단계 면접평가는 제출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으로 학업역량 40%, 진로역량 40%, 공동체역량 20%를 반영한다.

논술전형은 전형방법이 변경돼 논술고사 반영 비중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100%로 늘어났다. 논술고사 비중이 커진 만큼 학생부교과는 올해부터 반영하지 않는다.

논술전형에서 글로벌캠퍼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신설돼,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모두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캠퍼스 LD/LT학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과탐,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3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LD/LT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캠퍼스 모집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과탐,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캠퍼스 모든 모집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과탐, 1과목) 중 1개 영역 등급이 3 이내이고 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한국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은 9월 10일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류제출은 19일 오후 5시까지이다.



정석오 입학처장

학생부 성적반영 대폭 간소화... '학생부 교과 면접전형' 신설



모든전형·학과 수능 최저기준 없어 융합형 인재 양성 '광역학부제' 시행

호서대학교(이하 호서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모집정원의 89.1%인 2565명(정원 내)을 모집한다. 수시전형은 크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으로 나뉜다.

학생부교과전형 중 '학생부교과 학생부전형'으로 1231명(정원 내)을 선발한다. 이는 모집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서 학생부 교과성적으로 선발한다. 모든 전형 및 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



올해 학생부 성적 반영은 전년 대비 대폭 간소화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 등급 산출 과목은 석차등급 상위 12개 과목과 진로선택 상위 3개 과목으로 총 15개 과목을 반영한다. 반영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다.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으며, 진로선택 과목이 3개 미만인 경우 부족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중 상위 15개 과목을 자동 반영한다. 반영 방법이 작년과 다르니, 수험생은 반드시 입학처 홈페이지

지 학생부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학생부교과 면접전형'이 신설됐다. 호서대 면접전형은 항공서비스학과 47명을 선발하며, 학생부교과성적 60%와 면접 40%를 반영한다. 호서대의 대표적 학생부종합전형인 학생부종합 호서인재전형에서는 577명을 선발한다.

특히 2025학년도에는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됐다.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는 학생은 1학년에 각 계열 기초 및 진로탐색 과정을 이수한 뒤, 2학년에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단 보건의료계열, 사범계열 등의 일부 학과는 불가하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전형'으로 선발되며 선발규모는 15명이다.

또한 호서대는 미래 사회 수요 기반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광역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역학부제'는 유사 학문의 학과를 하나의 학부로 통합하고 학부 내 관련 트랙을 운영하는 학사구조다. 광역학부에 입학한 신입생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거쳐, 학부에 개설된 트랙을 단수 또는 복수로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호서대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2027년까지 총 1840명의 반도체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최인호 입학처장